

종합·해설

'이명박 X-파일' 진위 공방 확산

朴, 재산 8천억설·BBK 운영의혹 제기 李, "항간 떠도는 소문 악의적으로 이용"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산관련 의혹 등을 담은 '이명박 X-파일'의 실체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X-파일' 논란은 지난 3일 이 전 시장측 정두언 기획본부장이 박근혜 전 대표측 박성문 의원 등의 이 전 시장 재산 의혹 발언을 문제 삼아 "(곽 의원 등의) 충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대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곽 의원은 일부 인터넷 매체와 만나 비보도를 전제로 이 전 시장이 친·인척 등 차명을 이용해 8천억~9천억원의 재산을 신선했으며 이외에도 10여건의 X-파일을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명재산 8천억설=정 본부장의 문제 제기로 인해 곽 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시장이 친·인척 명의의 재산이 8천억~9천억원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해 "일부 기자들과 희석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혹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 'X-파일'과 관련, 곽 의원은 "참여정부 이전 정권 때 시장 선거에 쓴다고 만든 것을 보여준 주자가 갖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현재 건설에 있을 때 땅을 산 문제는 여권 의원이 엄청나게 취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이 전 시장이 18~19명의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재산이 8천억~9천억원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측 정두언 본부장은 "친척명의로 수천억원대 재산 소유 주장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준 투자사기 연관의혹=서울 시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거론돼 온 '김경준 사건'과 이 전 시장의 연관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읍서널벤처코리아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1년 회사 돈 380여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소액주주들이 김씨를 공공회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 문제는 김씨가 공공회령 사건 이전인 2000년 당시 이 전 시장과 동업해 'LK이뱅크'란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김씨의 누나인 한국계 미국인 여자변호사와 이 전 시장과 관계를 둘러싼 루머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주간지가 김경준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회

사 정관을 근거로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자산관리회사 BBK에 이 전 시장이 발기인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측은 "상법상 주식을 소유해야 발기인의 자격이 있는데 BBK 설립 당시인 99년 4월 이 전 시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단 한번도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생활=군면제 의혹을 비롯해 출생과 관련된 문제 등 사생활 관련 각종 의혹들도 'X-파일'의 소재로 거론되고 있다. 군면제 과정을 둘러싼 '거래설' 등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기관지확장증이 명사된 병무기록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은 상태다.

그러나 지만원씨 등 일부 극우세력 이 거론하고 있는 '호적 세탁설'을 비롯해 '숨겨놓은 자식' 등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저질 음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도개혁통합신당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통합민주당 실무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통합 실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통합민주, '통합 이면 합의' 공방

우리당 "총선 지분 나눠먹기 위한 사기정치" 통합민주당 "주도권 뺏기자 루머 퍼뜨려"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선언을 놓고 우리당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면서 우리당과 통합민주당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당은 먼저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밀실에서 양당간 총선 지분합의를 봤다며 '지분 나눠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성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양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몇 대 몇으로 공천 지분합의를 했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라

면 응답할 수 없다"며 "여러 면에서 분열적 소통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신당 김한길 대표가 우리당측에 소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이를 어겼다고 김 대표의 행보를 '사기정치'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가 지난 주말께 정세균 의장과 정대철 교민, 정동영 전 의장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라

지대 통합이 진행중에 있으니 소통합 추진을 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용의사를 밝히고서도 오히려 이를 지렛대 삼아 박상천 대표를 압박함으로써 배제론과 지도체제 등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것.

이처럼 우리당이 통합민주당 창당 협상을 놓고 이면 지분합의, 이중플레이 의혹 등을 제기하며 흡입내기에 나서자 합당의 당사자인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은 "통합의 주도권을 뺏긴 열린우리당이 당황한 나머지 갖가지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리며 당 내부를 단속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대운하 보고서' 李측, 국조 추진

우리 '제3지대 탈당' 움직임

천정배 의원 등과 결함 추진도

정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익성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서 작성한 것과 관련, 이 전 시장 진영이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번 정부 보고서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이명박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 특히 청와대 개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강공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

이 전 시장 캠프에서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문제의 보고서 첫머리에 '대의주의'라는 경고문구가 있고 'VIP(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지난 2월 22일)에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언급,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통합민주당' 창당 합의로 범여권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대선후보군과 의원들 일부가 '제3지대'로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열린우리당내에서 '배제론'의 불씨가 살아있는 통합민주당측에 곧바로 합류하겠다는 의원들은 찾기 어렵다. 대신 대통령 추진을 명분으로 일정 규모의 그룹을 이뤄 탈당한 뒤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 탈당을 공언한 정대철 상임교민 그룹,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 계열, 당 지도부와의 교감하여 탈당'하는 방안을 주장한 문화상 전 의장 그룹,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추진중인 이복희 의원 등 초계선 그룹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이는 이미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머물고 있는 천정배 이강래 이종걸 노웅래 전병헌 의원 등과의 결함도 적극 추진 중인 것



통합민주당 창당과 관련, 대통령을 추국하는 공동성명서를 낸 김근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철도로 세게로 의원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다. /연합뉴스

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근태 문화상 정동영 등 열린우리당 전직 당의장 3명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3지대에서 대통합의 전진기지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가 기록권을 버리고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힌 것은 이들이 '제3지대' 형성을 위해 공동 행보를 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초계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정선추진위원회'도 4일 원원식 이

복희 박영선 임종석 강창일 채수찬 노웅래 정성호 의원 등으로 간사단을 구성했고, 이날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손석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 등 공동행동을 위한 보조 맞추기에 들어갔다.

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탈당 시점은 열린우리당 현 지도부의 대통합 비상대권 종료시점 인 오는 14일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체제될 듯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중도통합민주당(약칭 통합민주당) 창당을 선언함에 따라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은 범여권 통합 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호남 민선의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파급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양당은 통합 이후 1개월 이내에 개편대회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심의 이후 공동 대표가 시·도당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위원장은 민주당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도개혁통합신당은 광주지역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남은 포기하더라도 광주에서는 공동 위원장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주시당 위원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광주와 서울, 대전 등 전국 핵심 지역의 경우, 통합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공동 위원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당장, 통합민주당 공동 광주시당 위원장으로는 중도통합신당의 대변인과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지역위원장 선임은 통합민주당 내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 단계적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며 현역위원은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들이 없는 지역의 위원장 선임은 최고 위원회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시당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7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앞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습득 (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보통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로 전액 국·공비 교육·무료제공, 수당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6/4 사무자동화 (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타 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액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지직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7.9 공무원 대비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독,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개강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6월 1일 주야(월)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222-4560

BUCK SH 빅쉬 BUCKISH 유동점

전국대리점 정찰기격입니다

꾸네오 이제는, 맞춰입는 기성복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빅쉬(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빅쉬 빅쉬만의 자랑 비정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자니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빅쉬를 만나보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062-514-1741

팩 스: 062-514-1745 휴대: 011-9603-1741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전남대학교 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 일구구 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당(구 도청) 지원07, 지원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8, 금남57, 금남58, 금남59, 중앙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개강 6월 1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 (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